朝鮮日報
總編輯 發行人兼 編輯人 印刷人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月定購讀料 百圓

韓委韓人招請을開始

會談內容은一切秘密

美軍側國防警備事情을說明

지난二十八日부터 韓國各界人士를招請하여 其任務遂行上必要한參考資料를取하기始作한 國聯韓委는 同日午後 同會議長 申翼熙氏를 先頭로招請하여 約一時間에걸처 會談을하였는데 韓國側人士와의會談은 昨二日에도 繼續하여 政府首班二人을招請會見하였다 卽 午前에는 全體會議를 열고 共同의第一分科委員會報告를檢討하는同時에 今後의第一、第二分委의連絡事項을討議하였으며 午後三時부터 第一、第二分委會議를열어 韓國人士二人을 招請會談하였다

「샤바스」氏는 韓國人과의會談內容은 一切秘密이라 發表하지않고있다 더욱이 그리고 美軍側에서는 一切秘密은 蘇聯政府의回答은 아직도消息이없으나 蘇聯側委員團의招請에對한 北韓人指導者會見의 方途를 硏究하고 있는中이라한다 그리고 지난廿八日 第十六會議에서는 委員團의 今後의 招請以外에는 如何한招請에도 同委員團은 應치않기로決議하고 公報第七號로써 이趣旨를 公表하였다 그리고 美軍側에서 國防警備隊(現在는國防警備隊)의 訓練狀況과 只今까지의 經過를 說明하였다한다

北韓人指導者와 懇親的인 會見에 關한 一切는

「유·엔」의 代表政府의 一層發展이었다 그는 「代表政府」라는文句가 抽象的으로 使用된것이며 特定政府를 言及한것은아니라고말하였다 그리고 U·N은 大韓民國政府가 合法的으로 選出되었으며 이것이 韓國에서 U·N監視委員團이 選擧를 監視할수있는 人民의 明白한意思를 代表하는 地域에서의 一層發展이었다

白日한意思는 代表하는것입을 이미 宣明하였다고 附言하였다 總會가U·N韓國委員團에 對하여 總會決議文第二項에 記述된바와 機能을 遂行함에있어 援助한것은 意味한것은 代表政府의 一層發展이었다

懇親的招請辭退

韓委決議七號를發表

「유·엔」韓國委員團은 三月一日 公報第七號로서 以下와같은 懇親會合에關한 決議文을 二月廿八日第十六次會議에서 採擇한것을 發表하였다

「유·엔」韓國委員團은 韓國人士들과 韓國當局者 및各團體로부터 지금까지 받은歡迎에 對하여 깊이感謝하며 또한協助的이며 友情的인 여러가지 招待에 對하여 感謝하는바이다 그러나 委員團의 第一任務가 그任務를 完遂하기爲하여 委員團은 關係方面에 對하여 單純히 懇親을 目的으로하는 會合에 招請할수있는데도 制限하기를 要請하는바이다 이 要請은 委員團關係員들이 그들의 第一次的인 任務에 獻身的으로 努力하기爲하여 或은招請을拒絶함으로서 誤解가생기지 않도록하려는바이다 委員團各員은 萬若事務局에依하여 用意할수있도록 미리充分한通告가있을때에限하여 公式會合에 參加할수있을것이다

代表政府의一層發展

韓委에서「샤」公報官談話釋明

U·N韓國委員團에서는 二月二十六日(土)實施된 新聞記者團과의 會見席上에서 一九四八年十一月十四日附U·N總會決議文中에있는「代表政府」(代議政體라고도 飜譯될수있음)라는 文句와 二十八日 다음과같은公報를 發表하였다

이에 對한 答辯은 不幸하게도 一新聞에依하야 잘못引用되었다 이 誤謬는 外國語로 通信하는것이 困難한데 基因하는것이다 事務局公報官은「韓國에서의 代表政府의 一層의發展」을 取扱한 同決議文中의 該當句節

【東京一日發AP合同】現在東京에와있는「유·엔」韓國委員團議長「패트리크·쇼―」氏(「오―스트레일리아」代表)

北韓指導者와의連絡

按觸地로中國을考慮

는廿八日當地에서「萬若「유·엔」韓委가 北韓指導者들과 會見하는데 있어서 蘇聯의 援助를 얻을수 없다면 中國에서 北韓指導者들의 意見을 聽取할수있도록 指導者들과 接觸하는데있어 蘇聯의 援助를 要求한바 있었는 것이다 이에 關聯하야「쇼―」氏는 韓國問題에 關하여 會見하도록 努力할지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유·엔」本部를 通하야 地域的으로 分斷된 北韓 國의 統一에 關하야 北韓 指導者들의 意見을 聽取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一年前의 韓國事態와 比較하야 現在 如斯한 協調가 있는듯한 徵候는 없다 在南 및 北韓의 經濟的 文化的 社會的 障壁을 減少시킬 수 있는 方途가 있으리라고 希望한다 그러나 韓國統一에 關하야 何等의 出發이

三八線에는 何等緊張의 氣色은 보이지 않으나 南北韓兩政府는 同境界線에 現在 北韓과 南韓을 分離하는 하고있다

韓委濠代表 東京서談話

나 韓委는南北韓을統一하려는데있어서 그의 指導者들은 協調하지 아니다 이것은 不可能한일은 아니나 나는 奇蹟을 期待하지는않는다 그러나 現在 商業과 其他交換은 極히 少數에 不過하다(쇼氏談話는 新韓委公報官을 말하였다)

韓人等歸化案

美下院을通過

【워싱톤二日發AP=合同】「아시아」太平洋沿岸民의 歸化를 許諾하는 法案을 通過시키고 上院에 回附하였다 이것은

對日通商交涉

廿二日頃에豫備會談

民國政府에서는 그동안 對外通商에 對한 具體案을 硏究中으로 되어 對日對比通商會談을 近近開始하게 되었다고 한다 于先來三月二十二日頃 日本東京에서 第一次로 對日通商에 對한 日本側과의 豫備會談을 열게되여 政府에서는 方今人選中에있다고 한다 林外務長官의 말에 依하면 이 會談에는 外務部와 商工部關係에서 五名의 正式代表가 갈것인데 이 決定은 大統領의 對日通商協定이 된뒤에는 比賊과 美國과도 通商協定을 締結하여 代表를 派遣하리라고 한다 그런데 現在의 狀態로는 外務部에서는 通商局長 全禮鎔氏가 代表로될 것으로 보이며 韓國의 通商代表 記報道班의 同伴渡日에 對하여서도 考慮하리라고 한다

韓等占領事務

로 陸軍次官補擔當

【워싱톤二日發UP고려】

「로얄」陸軍長官은 陸軍次官補「드레이퍼」氏가 長官 總督下의 韓國日本獨逸의 占領問題에 關한 實務를 擔當하게 되었다 「드레이퍼」次官은 消息通에서는 「보」氏는 强力한 「맥아더」將軍支持者이며 그

大韓國民黨

常任部署決定

大韓國民黨에서는 常任部署를 다음과같이 決定하였다

▲總務部長 孫昇雲 ▲財政部長 尹錫五 ▲組織部長 趙寬俊 ▲企劃部長 金安 ▲調查部長 鄭泰熙 ▲外事部次長 金益俊 ▲勞農部長 尹翰植 ▲宣傳部次長 李正中 ▲事業部次長 元昌植 ▲訓練部長 朴永出 ▲靑年部長 南松鶴 ▲婦女部長 孫메리

의 今番任命은 日本에 對한 無論政策을 堅持하고 反財閥政策은 確認하고 土地改革計劃을 强化할것을 意味하는것이라고 보고있다

美對韓日政策

再檢討가必要

【評論】記者美

【워싱톤一日發UP고려】軍事評論家「M하일로프」氏는 日本 韓國에 對한 美國의 立場에 關하야 아래와같이 論評하였다

「今日美國은 日本占領政策을 調查할 必要가 있다 東政府에 對하여 「맥아더」將軍이 與論가 있다면 그의 見解는 記錄에남지는것이 必要할것이다 日本에 關한 最近에 神秘的 報道는 아직 說明되지 못하였다 美國人中에서 今日八千萬의 日人을 統治하고 있는 「맥아더」將軍의 立場만큼 複雜多端한것은 드물것이다 그는 蘇聯共產主義와 싸우기爲한 基地를 日本에 建設하고있으며 그의 獨自的 戰略과 政策을 樹立하고 있다고 非難을 받고 있다 「맥아더」將軍은 一種의 無冠의 帝王이 되었다면 以上과 같은 態度는 部大體

一九三七年以來 美國에도 이와同時에 韓國에 있어서의 美國의 立場도 檢討를 要한다 韓國에서 經驗을 쌓은 多數의 人士는 韓國에 남아있는 名目的 軍隊는 所用없는 目的을 爲하여 不足한 兵力을 消費하는것이라고 보고있다 너무나 오래동안 一般은 日本極東事態에 無關心하야 周圍環境과 다른 權力의 缺如로 因하여 「맥아더」將軍이 不得已

晴曇不明格?

國會와政府의對立

政界點描

그러나 政府가 자주 國會와 對立하여 政治가 잘 되지 못한다는 것은 ... 民主政治를 指向하는 이 마당에 있어 어떠한 것이냐 ... 이라한 現象을 ... 그리하여 分立에서 ... 立法府나 司法府에 行政府나

對外 ... 國會와 政府가 對立 ... 各局 ... 우리는 ... 民主主義 ... [illegible]

美對韓日政策

對英九億弗援助

美互經援局長、國會에要請

【워싱톤二日發UP고려】ECA長官「호프만」氏는 上院外交委員會에서 美經濟援助에 關하야 如左히 말하였다 「英經濟復興은 蘇聯의 衝擊으로 되었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英國은 그와 反對로 英國은 아직 充分히 恢復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英國에 對한 九億四千萬弗援助案을 一部라도 減額한다면 이는 英國뿐 아니라 西歐全體의 復興을 危殆롭게 할것이라」다」 「호프만」氏와 諸國代表는 「돈·코나리」委員長은 「호프만」長官의 說明에 滿足의 뜻을 表明하는 同時 英國援助案에 對하야 實質的 變更은 없었다

大韓觀察府法的根據

四八議員政府에質問書提出

水原事件을 契機로 大韓觀察府의 正體가 드러나 國會에서는 觀察府가 人權을 蹂躪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百害無益하다는 事實을 指摘하여 그 解體를 政府에 要請하는 質問書를 提出하였다 卽 金議員等四十八名은 二日政府에 對하여 그 法的根據를 明白히 하는 다음과같은 五項目의 質問書를 提出하였다

一、大韓觀察府는 무슨法的根據에 依해서 設置된것인가
二、大韓觀察府의 職制와 職員數는 如何
三、大韓觀察府의 經費와 그 支出은 如何
四、大韓觀察府員의 所持한 武器는 누가 許可한것인가
五、過去六個月間에 支出한 經費와 그 使用은 무슨項目에 依한것인가

今週中에發表豫定인

大西洋防衛同盟

美、巨額援助는確實視

【워싱톤一日發AP合同】大西洋防衛條約締結에 關한 現在의 交涉狀況은 大部分 이미 使用할수있는 程度로 完成되었다 (一) 美國「캐나다」英國佛蘭西「베르기―」「홀랜드」及「룩셈불크」의 代表는 大西洋防衛體制에 對한 正式態度를 決定할것이다 (二) 「노르웨이」政府는 北大西洋防衛條約에 參加하는것이 可能한限早速히 (三) 美國務長官 「애치슨」氏는 同條約에 關하야 美上院外交委員會와 第二次會談을 할것이다 (四) 大西洋防衛條約會議는 「아직 參加하지 않은 國家에 對한 「노르웨이」等에 對한 同會議에 參加하라는 要求를 할것이다

現在 北大西洋防衛條約은 完全히 作成되었다 그러나 西歐諸國이 美國으로부터 期待하고 있는 援助額은 畢竟 今週中에 正式으로 알게될 것인데 現在 不明이다 그리고 西歐는 蘇聯의 攻擊에 對抗하여 美國의 軍事的 援助는 「이니시아티브」를 取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西歐가 當面한 西歐各國은 一年間의 軍事力을 維持하여야 할것이다

猶트兩國間에休戰會談開始

【로도스二日發UP고려】「이스라엘」「트란스요르단」間의 休戰會談이 一日부터 當地에서 開催되었다 이 會談은 成立된 「이집트」와 「이스라엘」間의 休戰條約이 正式調印된것과 마찬가지로 이룩될것이다

南京서開院

中立法院

【南京一日發INS合同】中國立法院은 二十八日 南京에서 드디어 開院하였는데 李宗仁總統代理는 開院式에 臨席하야 國民政府에 首都를 南京에 維持하여야한다고 力說하였다 이날 出席한 立法議員은 約二百名에 達하였으며 院長인 孫科氏는 今次會期의 同院의 任務는 和平達成과 政治改革에 있다고 言明하고 이어 政治改革이란 單純히 政府人員의 更迭問題는 아니라고 指摘했다 한편 李宗仁氏는 北平으로부터 歸寧한上海和平使節團과 協議하였다

毛澤東氏石

家莊에居住

【南京一日發UP=고려】非公式和平團側近消息通에 依하면 毛澤東氏는 現在石家莊市에 居住하고 있으나 그의 居處는 同市에서 相當히 떨어진 곳에 있다 한다 國府側和平使節團은 二月二十二日正午에 石家莊에 到着하여 毛氏와 會見하고저 그

그리하여 國府側主席代理 任命될 것이며 以外에 張治中將軍 및 行政院水利部長이며 孫科氏의 支持者라고 생각되고있는 鍾千心氏로 國府側代表로 任命될것이라 한다 한편 南京에 드러온 報道에 依하면 中共側은 右의 「三原則」을 依然 堅持할 것이라 한다

和平問題의協議에參與

孫首相歸寧으로事態明朗化

【南京一日發UP=고려】孫科首相은 共產黨과의 和平會談案에 參與코저 二十八日 南京에 到着하였다 非公式報道에 依하면 國共和平會談은 三月中에 開始되리라고 한다 孫科首相과 其他政府首腦部는 李宗仁總統代理를 中心으로 北平에서 도라온 邵力子氏의 報告에 立脚하여 政府의 和平努力 開始以來 現在 和平에 對한 展望을 綜合하여 現情勢는 大要 아래와 같다

一、毛澤東氏는 邵力子氏를 通하여 李宗仁氏에게 長文의 親書를 傳達하였다
二、國共間의 北平和平會談이 實際的 士氣에 좋았다
三、共產黨首腦部는 和平會談進行中 軍事攻勢를 再開하지 않는데 同意하였다
四、華北에서 共產黨首腦者와 會談한 非公式和平使節團에 依하면 共產黨의 和平에 對한 誠意를 信任할수있다
五、共產黨이 今月中에 和平會談代表를 指名하는데서 開催될것이다

卽時和平會談이 北平에서 開催될것이다

兩地間分裂의初和合

孫科首相의 南京歸還 및 立法院會議의 開催等이 있다는 것은 孫科氏는 二十八日午後一時三十五分에 蔣介石氏의 自家用機인 四發C-I機로 當地에 到着하였으며 今月初에 開催豫定인 中共側과의 和平會談을 準備코저 李宗仁氏等이 合流하였다

그러나 南京과 廣東間의 같은 印象을 주지는 않았으며 孫科氏의 歸寧은 兩派의 分裂原因을 除去하게 된다 南京官邊側에는 二十七日非公式으로

和平使節團에 對하여 行한 歡迎에 比하여 그를 맞이하러 出迎한 것은 一部少數官吏뿐이였다 그러나 副首相吳鐵城監察院長 于右任立法院長 童冠賢氏等 要人이 出迎하였다 그리고 南京의 主要閣員은 모다 南京에 모이게 되었으며 孫科氏는 空港에서 待機中인 新聞記者에 對하여는 拒絕하였으나 그의 代辯人은 首相이 一日 會議에 參席하리라 하였다

國共各四名式

今月內로豫備的會談

【南京二日發AP合同】有力한 消息通이 言明한바에 依하면 中國和平正式交涉은 南京側이 正式代表를 任命하면 곧 北平에서 開始될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國府側의 大部分은 立法院會議의 召集等에 忠實한 政府가 和平會談과 같이 政府側이 此를 覺悟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一) 和平協商은 北平에서 開始될것
(二) 國民黨方面은 各各四名의 代表를 任命할것
(三) 右正式代表以外에 九名의 補助代表를 任命할수있을것

上海「非公式」和平使節團은 다음과 같은 點에 合意를 보았다고 한다

極東共產勢力에

西歐勢力糾合이必要

런던 타임스紙社說

【런던一日發UP고려】런던타임스紙社說은 「極東의 共產主義勢力의 擴大에 對한 西歐의 一層의 努力이 必要하다」고 다음과같이 論하였다

「極東의 共產主義勢力이 擴大되었다 今日 中國에서는 西歐諸國의 支配의 影響力은 弱化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東南亞細亞의 共產主義의 危險이 增大되고 있으며 「버마」 其他 印度支那에 있어서도 亂離가 계속되고있다 特히 印度洋南支那海에 臨한 英聯邦의 生命線에 있어서 亞細亞의 叛亂은 危險하며 이는 英佛和가 依存하는 原料補給을 破壞하고 東南亞細亞 方面의 英國의 利益을 損傷시키고 있다 今番 「뉴델리」會議가 共同의 關心의 對象이 되는 重要問題에 있어서 全西歐諸國의 緊密한 協議를 助長하는 標本이 될수있다면 그 意義는 대단히 클것이다 西歐諸國은 最近 東南亞細亞의 經濟 및 技術援助를 最大限으로 利用하는데 參加하는 것이 必要하다

外軍의撤退와言論自由保障

民自聯見解發表

民族自主聯盟宣傳局에서는 二日當面諸問題에 關하야 다음과같은 見解를 發表하였다

一、美蘇兩大勢力下의 統一된 우리나라 現實에 있어 눈날 이 民族的 不幸을 根本的으로 除去하고 完全自主統一獨立을 確保하려면 반드시 外軍의 撤退가 斷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眞正한 自主性을 保障하기爲하여 美蘇兩軍撤退監視를 基本使命의 하나로 實踐에 努力할 것이다
二、三·一運動精神으로 우리는 南北和平統一에 邁進할 것이다
二、言論 集會 結社等의 自由保障에 對하여는 아직까지 眞正한 民意를 充分히 反映하지 못한 程度에 이르러 封鎖되어 民心의 움직임이 不安하게 되어 人民이 가는 感이 不無하며 이에 따라 時局의 不安을 招來할 念慮가 없지 않으니 當局은 言論自由를 保障하며 明朗한 社會相을 育成하도록 할것이다

伊共黨三氏도蘇軍進擊歡迎

【로―마二十七日發AP合同】「로마」「우니타」共產黨機關紙 二十六日 右翼新聞의 議員質問에 關하여 나는 蘇聯이 조금이라도 他國을 侵略하려는 意圖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듣지못하였다 그러나 蘇聯이 侵略者를 追擊하기爲하여 「이탈리」까지 進擊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 境遇를 假定한다면 「이탈리」人民은 모든 效果的方法으로 蘇軍을 도울 義務가 있다고 보며 또 그것으로 侵略者에게 좋은 敎訓을 주어야 할것이다

마산元帥現役復歸

【워싱톤二日發UP=合同】前國務長官「조지·마―샬」元帥는 大統領에 依하여 一日現役으로 復歸되었는데 陸軍側發表에 依하면 「마―샬」氏는 一定한 職位에는 任命되지 않을것이라한다

中立法院 ... 外務部에 案內 迎接을받았다한다 그 러고 그들은 二月二十四日 早朝까지 毛氏를 기다리고 있었다한다

强權發動中止

大韓勞農黨談話

大韓勞農黨 宣傳委員會에서는 二十八日 糧穀買上에 强權發動問題에 言及하야 「近日 農村에서 드리오는 情報에 依하면 强權發動에 따라 農村民心은 不安定되고있다하니 政府는 國會에서 採擇된 强權發動中止 에 關한 建議案을 實踐하는 同時에 補償物資를 準備하여 圓滑한 買上을 期하도록 하라」는 要旨의 見解를 發表하였다

政界動靜

▲民主國民黨에서는 昨二日下午二時 常任委員及黨國會議員連席會議를 開催하였으며 來五日下午二時에는 黨務委員會를 開催하리라한다
▲大韓國民黨에서는 二十八日 高陽郡黨部를 結成하였다한다
▲金東元氏(朝鮮印刷會社營業部長)三月一日 載永洞四八番地에서 遭外谷三街一九九番地(電本五五二一)로 移轉
▲關西黨氏(鐵道士)乙支路

人事消息
新聞發行所 入事不來社

福運定期 預金當選通告書

本團主催 福運定期預金은豫定日인 檀紀四二八二年二月二十六日에 抽籤한 結果下記와如히當選되었삽기玆에 通告하나이다

檀紀4282年 2月28日 大韓金融團

各組共通	一等	四等				五等
	62191	16388	33618	67067		91
	二等	20263	35706	68936		此番號와同一한것全部
	25551	21922	36127	69552		此番號及其他番號中 其下位二桁의數字가
	65316	28828	36391	70710		
	三等	43437	37702	71687		
	18308	76185	38047	76603		
	29386	15444	38726	78622		
	30939	15540	40111	79520		
	46623	16843	40995	80752		
	49130	18444	42278	81011		
	54290	18784	42955	81869		
	61572	19553	43390	83861		
	85496	19592	43889	85417		
	96912	20143	44698	85913		
	97178	20307	46035	86150		
		21562	46957	87463		
		21956	47514	88595		
		22246	47594	89010		
		22563	48210	89137		
		24192	48901	91428		
		24720	50909	91426		
		26385	52287	92643		
		27000	52562	93350		
		28449	57638	94610		
		29919	58086	95469		
		30537	58510	95991		
		30668	60105	97209		
		30732	60657	97240		
		31441	61106	99105		
		32805	61579	99296		
			62961	99731		
			63381			
			64451			

待望의三版發賣

단기 4281 年度

大學入學試驗問題模範解答集

東亞文化社編輯部編

男女各大學入學試驗問題를 總網羅하야 明確簡正한解答을 베프른 受驗生必携의 良書出來!

高級更紙46版 185頁 값350圓

全國有名書店에서販賣

發行處 東 亞 文 化 社

서울市西大門區萬里洞2街153의36

서울競馬場

臨時女子事務員募集

一、募集人員 二五〇名(女子)
一、資格 國民學校卒業以上程度
一、年齡 十八歲以上三十歲以下
一、應募 三月五日正午

詳細는서울競馬場에問議할事(但電話照會는謝絕)

聲明書

解放後本人等이 南勞黨에 加入하였던바 今般同黨을 脫退하고 現大韓民國政府에 忠誠을다하겠음으로 玆에 聲明함

檀紀四二八二年二月二十五日
永登浦區道林洞 李源執
永登浦區新吉洞 金河光

補缺生募集

均明中學校

(六年制)

募集人員 第一部(晝)第二部(夜) 第一·二學年 各學年 若干名
願書마감 三月十五日까지
試驗期日 三月十七日부터

서울市西大門區萬里洞二街二一八
電話本局(2)五五六二番

洋裁女學生募集

一、本科硏究科畫夜各百名 詳細來問 願書交付中

서울市鳳翼洞一六一 圓成社 電光三三五六番

洋裁界最高學府 高麗洋裝專門

化粧品部

大昌洋行

서울市忠武路四街二三
電本局(2)一四八六番

賣家 高級文化住宅

所在 桂洞、坪二八七坪 建九〇坪
周旋處 電光 三三四番

痔疾專門

姜明宣肛門科

聲明書

今般本人은 非民族的이며 破壞的인 南勞黨을 脫黨함과 同時에 新生大韓民國政府에 全力을 다하여 協力할 것을 굳게 盟誓하고자 以上 聲明함

檀紀四二八二年一月 日
忠山郡城北面石龜里 愼璘範

靑文잉크

번지지않고 굳어지는 귀운잉크

會社 商事 商會 大和 南大門 東大門 市場 總販賣元

脫黨聲明書

解放後思想의 混亂과 淺學으로 錯覺한 所致로 左翼系列의 欺瞞宣傳에 乘用되어 南勞黨에 入黨하야 盲從하였음은 實로 非國家非民族的임을 覺醒悔悟하며 더욱이 同黨이 兇惡無道한 謀略과 手段을 取하야 殺人放火破壞等 京鄕各地에 同族의 生命財產을 掠奪함을 目擊하고 天人共히 容赦치못할 罪惡임으로 悲憤을 禁치못하야 吾等은 今後同黨을 脫退하고 그 抹殺에 積極協力하며 大韓民國에 忠誠을 다할 것을 굳게 盟誓함

檀紀四二八二年二月二十四日
京畿道平澤郡浦升面

◎道谷里
金英培 孫基天 金吉萬 孫洪燁 孫基運 金德根 金壽福 池成禮 林天降 吳鳳根 池在龍 李泰鳳 林錫山 李元雨 李鳳雨 李福鉉
河基成 林仲和 金樂根 朴孝德 河龍男 鄭時雨 池錫允 宋任喜 李相安 嚴石奉 文仲燁 林天餘 崔基德 徐廷鶴 李鍾雨 李匡鉉
李相萬 韓興燁 孫在和 孫建燁 金東根 鄭時學 孫元慶 李載淑 李聖載 金潤洙 朴相五 池在山 金長洙 李啓 李哲潤
孫基先 金吉鳳 孫培鴻 鄭金玉 吳時萬 金鎭龍 咸萬熙 河二男 李貞玉 文錫燮 吳泰元 吳興根 李啓雨 李澄 李泳根

◎洪原里
朴明在 黃郁在 成落成 李正範 林相哲 李圭行 方大洙

◎晩湖里
李載成 洪仁公 李九春 李大勳 朴容哲 李興相 金興權 黃鍾夏 李中春 朴容珏 朴舜還 金東鎭 李源斗 崔地植 李庚澤 李相奎 崔允燮 黃禹泳 金昌基 李石春 朴明燮 李昌相

◎芳林里
朴來敎 朴在鵬 朴連煥 朴在實 朴永鎭 朴來章 朴在勳 朴堯煥

◎遠井里
梁核童 梁鎬錫 梁漢根 朴俊圭 安在陽 朴昇洙 全濟龍 宋春根 全榮憲 全榮壽 李吉憲 申淑熙 崔燦 李福順
李基駿 李金伊 劉大奉 劉昌烈 朴起陽 李章吉 裵容根 朴東順 洪哲植 朴容三 洪任熙 金順德 全榮哲 李炳熙
朴鳳煥 朴有守 徐義煥 崔完用 金鎣來 全榮淑 張千萬 裵容雲 申泰淵 崔龍男 全永愛 盧五星 金龍俊 李炳準
金顯瑨 安圭鳳 劉圭煥 李甲順 全濟賢 文吉東 宋完宰 裵容文 裵慶培 金正奉 奉石根 孫升燁 金榮讚 李炳吉

全國坊坊谷에 萬歲聲은 震動

先烈遺志를 統一로 繼承

城東原頭에 三·一慶祝大會盛況

일제의 잔악한 칼아래에서 한곳 짓밟힌 민족의 분노가 폭발하여 우리민족 해방독립운동사상의 영원한 축적을 남긴 기미독립선언의 설흔번째 三월一일은 왔다 고귀한 선열의 피로물들인 원한에 맺치고도 거룩한 조국통일의 위업을 축복하고저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서는 성대한 기념축전이 전개되었으며 서울의 기미독립선언기념축전은 서울시주최로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사진上은 대회장전경과 ○내는 좌로부터 이대통령 유어만 한위중국대표 제미슨 한위의장 오세창옹 下는 시가행진광경)

이날 서울운동장에는 각 관공서원을 비롯하여 학교 정당단체 그리고 대한청년단과 각사회단체가 일곱시부터 물밀듯 밀려들었다 오전의 화창한 봄바람은 이날의 이의를 축복하듯이 희망에 찬 군중의 머리위에 가벼히 불어나렸다 정각이 지난 十一시三十분 기념식장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지만 아직도 줄은 대한청년 단기는식장 정문으로 연발 아 몰어와 회장의 반은 차지한듯하였다 이윽고 十一시四十분 이석기(李錫基)씨의 개회선언으로 식전은 개막되었다 우선 서울시 청취주악단의 주악에 이어 국기계양 국가봉창 그리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은 다음 다음과같은 요지의 윤서울시장의 축사가 있었고 오세창옹으로부터 「너이들아! 三·一정신을 기념말고 三·一정신을보다 더크게 창조하지못하느냐」고하는 순국한 선열들의 우리에 향한 유언을말 하였을때 장내는 흥분의 극에 달하였다 그러자 대통령이 만세삼창을 선창하자 국민의 총렬기를요 청하는 기념사가 있었고 주유·엔대표 무치오특사 유어만씨등의 다음과같은 내용의 내빈축사가 있었고 경기여중의 삼일절의노래 합창 주악끝으로 이(李)국무총리의 선창으로 만세성이 성동원두에 울리면서 식은 一시十五분 원만성대히 끝났다

韓國은 自由의 나라

三·一節의 本意를 體得하소

무치오 氏祝辭

내가 오늘에있어 특히 감명하는것은 조선의 三·一운동기념일이 미국에있어서의 독립기념일과 그성질이 같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도 정세적으로 나대한 편난상태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모든것을 극복하고 오늘의 미국을수립한것이다 이제 한국은 자유와 독립의 나라이다 독립당시 미국은 하나의 우방도 없이 고립상태였었으나 금일의 한국은 그렇지않다 잘국에대한 현혜를보아도 그중거가된다 내가 기쁘게생각하는것은 三一절의뜻이 한국에있어서 착착실현되어가고 있다는것이다

中央廳職員 三一記念式

지난三월一일 제三十주년 기미독립선언기념일을 마지하야 오전十시부터 중앙청광장에서는 국회의원 정부각료 중앙청직원 참석하에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국기게양 국가봉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은다음 국무총리의 기념사 (記念辭)가 있은다음 三一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식은 만세삼창으로 끝마치었다

삐라事件發生

首都警察治安萬全

三·一국경일을 전후하여 좌익계열의 모략이있을것이라고 하야 서울시경찰국에서는 경관을 총동원하야 이에대한 삼엄한 경계망을 치고 있었는데 다음과같이 삐라산포와 ○○기계를 시내수개처에서 발견하였다

△二十八일 오후六시경 종로(鐘路)「관동양여」에서 「최(崔)」 명의 「공한파괴정권」 「인민공화국만세」라는 내용의 삐라를 사찰반이 압수하였다

△一일오전八시경 종로三가와 동九시경「국정동」에서 「동대문」관내 삐라 약 수천매를 발견하였다

△이날오전五시경 영등포(永登浦)「○○기계」 (문래동) 국민학교에서 「○○기나 다」 하는 삐라를 발견하였다

朴興植은 特裁

第一部서 擔當

二十八일 반민법 특별재판관회의에서 반민피의자 朴興植 사건은 제一부에서 담당키로 되었다는데 재판장 재판관은 다음과 같다 (중략)

南學鳳出監

지난 一월二十一일 반민특위에 체포된 남학봉(南學鳳)은 일단조사를 완료하고 검찰부에 송치하였다

反民公判廷

大法院을 使用

반민특위에서는 지난二十八일 대법원과 협의한 결과 반민자 공판정으로서 대법원 공판정을 사용하기로 되었다 한다

親日言論人金東煥

「나도處斷받겠오」하고自首

지난二十八일 오후二시 친일언론인 김동환(金東煥)이 자수하여 왔다 그는 지난날 친일행동을 감행하고 강연으로 필봉으로 민족문화를 말살하기에 정말 반역을 하였다

尹市長式辭

우리는 오늘 이자리에서 三·一운동당시 전계의 거족적인항쟁을 뜻있게 기념하게되었읍니다 三十년간을두고 항상 사라지지 않는 그정신과 열망이 헛되지않아서 우리의 정부를 가지고 처음으로 이날을 기념하게 되었으니 이민족적인 감격과 환희는 오로지 선열의 조국투쟁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森嚴한 警備裡

群衆街頭行進

기념식전이 끝나자 이어 시가행진으로 들어갔는데 특히 대한민국수립이래 처음 맞는 三·一절을 더욱 빛내고저 서울시 거리거리에 삼엄한 경관의 경비와 아울러 국방부에서는 전차(戰車)·경기관총차(輕機關銃車)가 부대를 선두로 행진하였다

仁川國民大會

우리민족의 꽃이요자손만대에 영원히기념할 三一절 제三十주년기념 인천시민대회는 부내 도원(桃源)동 공설그라운드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김영(金永榮)씨 사회로 개최되어 관계당국자와 사회 각방면의 기념축사가있은 다음 인천주둔十一연대장의 축사에 이어서 하오一시경 폐회하고 청년단체를 비롯하야 각직역단체들의 시가행진으로 기념국민대회를 마쳤다【仁川發】

先烈의 偉勳追慕

卅三人中廿一人追念祭嚴修

기념식전이 끝난뒤에 곳이어 三十三인중 오늘날까지 작고한 스물한분에 대한 「제一회합동추념제」가 엄숙성대히 거행되였다 특히 이날식장에는 작고한선열의 유족다수가 참렬하였다 중앙제단에는 고二十一인의 유영(遺影)을 안치하고 아악이 애달프게울리는가운데 오후二시반부터 식은열리여 김진경(吉鎭京)씨의 사회로 진행되여 순국선열에 대한 묵상에 국가봉창이있은후 오하영(吳夏英)씨의 식사와 이화합창단의 조가가 끝난 다음 제문을 오세창(吳世昌)옹이 낭독하고 국무총리(대독金奎弘씨)등을 비롯하야 각계에서 보내온 추념사낭독이있은후 분향조악에 제식은 엄숙성대히 끝마치었다 그런데 三十三인중 작고하신 스물한분은 다음과같다

羅龍煥 梁甸伯 梁漢默 劉如大 李鍾勳 林禮煥 朴準承 朴東完 申洪植 崔聖模 韓龍雲 洪基兆 洪秉箕 白龍成 孫秉熙 李昇薰 吉善宙 李鍾一 權秉悳 金秉祚

英雄的鬪爭을再認識

國聯韓委議長 제미슨氏祝辭

오늘이 이장집은모임에 여러분과같이 참석하게됨을 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원단의 동료여러분들도 나와동감일줄로 압니다 내가알기에는 한국민중전체가 국내적으로 밖에가지 정견을떠나서 기미운동의 정신을살리는데있어 한치된것으로 봅니다 외국에서온 우리로서는 이운동을볼때에 十八세기말에 구라파에서 시작된 맹렬한 민족해방운동이 계속해서 현재에이르는동안 「아세아」에까지 퍼진운동의 일부분이라고할 수있을것입니다

三·一운동은 과연 동파할수없는것을 상대로한 영웅적투쟁이였읍니다 그때 일본은 한국에대하야 강압적이었을뿐만아니라 제一차세계대전의 전승국의 일원이였든 까닭에 한국문제토의를 방해할수 있었든 것입니다 비록 그당시에는 성공이되지 못하였지만 내생각에는 오늘날 귀국의 해방에 중요한 계단을 지었든것입니다 만일 기미운동이 없었다면 이번 제二차세계대전의 결과 한국의해방은 어려웠을것입니다

그때 해외에있는 귀국대표들이 연합국대표들에게 강한인상을주지못하였으리라고 나는 단크게말할수있읍니다 一九一九년으로 一九四五년까지의 긴밀한관련이있읍니다 一九四五년은 일본의군국주의가 최후실패에 돌아가는 오늘우리가 이곳서울에 오도록된 국제연합기구의 성립을 보게된것입니다 근래 귀국역사상에는 중요한 페지를 더하였읍니다 앞으로 더욱빛난 한페지를 귀국역사상에 더하는것을 보기를바랍니다

文化

나의 回顧談 (二)

三十년전 三一운동을 回想하며

金 道 泰

그러고는 다시어디로살는지 너갈왔다 鄭魯湜의 집은 아무소리가 없고 손음낭았다 그곳은 그리 조용하기가 적이없다 일찍것이 없다만은 여기 마였노라니 원머리가 비서 서니안 못잡으려고 十餘日 진 日本사람하나가 득뒤 이나에 들렸는데 인제야 왔어 오며오면서 비가 金道泰 고나하며 나는처음으로는 나 鄭魯湜을 농청스런게 이위풍굴하야 아니내가 무그랬다고 하였며 순료자있기에 그러 이러한말들이 들린다

으며고 애들했소 이놈아 罪가없어! 하는 목소리는 지금하든말소리와는 딴판으로 무섭고 도 위협이있었다 豫期한일이 지만은 놀라지않을수 없었다 이어 獄室에서 끌려나와 留置場으로 옮겨왔다 留置場은 房이 여럿이 있으며 房마다 창살이 바로있고 한 房에 한사람式 들어있다 마치 動物園에서 호랑이나 곰이 들어있는것과 비슷하다 앞에 바로 보이는 곳에서 張德秀가 울고 있었다

님을갈느고 옷고름을 뜻고 동정을때여 버린後에 이놈들이 야기하는것을 보니 모다아는 모양이다 이놈은 저一뒤房으로 넝어다 이하면서 재일컴컴한房에 들어갔다

한참동안 어떤영문인지도 모르고 하라는데로만 들어간後에는 인제될대로 아갓치만은 쇠창살안으로 들어간後에는 인제될대로 되겠지 하였다

얼마있다가 宋鎭禹가 時間 되였음인가 한다 여기에는 留置場안에 便所가 없음으로 다가大小便을 누이게할 때 로 그다 석時間동안 참기가 어려워서 그러는것이다

까닭에 日本사람行勢를 하였고 姓名을 變하야 木村謙一이라고 하였는데 마음大阪사는日人에 正말 木村謙一이란者가 殺人罪를 지어 그者를잡으려고 어

放浪記 (3)

短篇小說

金 永 壽 作 / 金 龍 煥 畫

(봉주야―!)

무척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봉주는 그저 가슴이 뭉클하였다

「봉주야!」

봉주는 돌아서 나가려다가 문득 발을 멈추고 선희를 보았다

「선희!」

봉주는 그만 울고 말았다

「가겠어요! 가겠어요!」

「가겠어요 어서 나를……」

선희의 입에서는 자신이 말 바께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도 선희는 편편한 봉주의 가슴이 바위 같이 믿엄고 든든하여 얼굴을 마음껏 부비대였다 (끝)

三千里

己未運動三十周年紀念號

四十年間朝鮮基督敎의 日帝抗爭秘史 YMCA幹事 朴永昌

★日本議會에서의 抗爭★南總督에의 抗議文

大海軍建設과 我國海運 內務長官 申性模

☆죽지않는 眞理 曺晚植

極東赤化危機와 美國에 直言 朴烈

△關東大震災의 五千萬日의 德沼 △學校의 北京人城

特別記事

30年前此月此日, 海內海外서 百萬白衣人이 動員 己未全貌記

☆李太王國葬記 閔泰瑗

☆上海政府와 天道敎連絡記 吳鳳彬

☆花井博士의 萬歲事件辯論演說

余의 革命時節日誌 李範奭

(紀行) 巴里詩貼 毛允淑

(小說) 움물는치 風景 崔貞熙

北韓同族에 告함 遞信長官 尹錫龜

◆外務長官 林炳稷氏家庭을 차저서 (本社女記者)

○○李太王謁見記 前培材校長 亞編薛羅

○金마리아事件全貌 ○田園詩人陶淵明

東京 李垠氏

子息은 美國留學보내겠고 故國에오고십고等々會見記錄으로全七十枚 東京三千里特派員記

總販賣所 崇文社

特價 150圓

三千里 特報 三千里輯

觀國韓의 代表 各界 政論 黨界 日本

己未運動三十周年紀念號 ★우리나라가

興亡盛衰 — 우리民族性과·現下民心動向으로보아 —

憂國經世家十餘氏의 建國以來처음보는 一大痛論

獨立半年만에 우리社會를살펴본이現狀 이기는알인가? 숭고이플인가 ?諸氏의熱論

副統領 李始榮 國務總理 李範奭 國會議長 申翼熙 參謀總長 蔡秉德 朝民黨 韓根祖 社會長官 李允榮 交通長官 許政 審計院長 明濟世 新生會 安在鴻 外務長官 林炳稷 外 諸氏

政治指導者孫秉熙論 安在鴻

名文章集

韓國事外 責任 安 昌 浩

恨많은 德壽宮 李 允 宰

景福宮記 文 一 平

上海政府初代首相 李東輝會見記

◆己未年美國서 한 李承晚博士演說文

◆美國議會에 登場된 韓國獨立案

★獄中의 孫氏와 愛人朱山月의 紅淚

情春國의 孫秉熙와 臨終과 死生觀 李敦化

國會議員 在獄年數表 牧師長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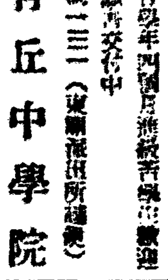
外와 强力內服 射注劑治驗 梅毒에 藥銀水 太平科醫院 (本社內 中央通路 下)

本社 本局(3)四六九三番

男女速成中學生募集 青丘中學院

다다미 業界의 老古 移轉謹告 割引 中央다다미商會 서울市乙支路二街

易學大家 金東礎 先生



四柱 觀相 千里 特別宮合法 小生 金鵬步 白 서울市 金豐旅館內 電話(東)一六九四